

# “얼마든지 와라!... 오늘도 다투었다”

## 네번째 한-일대전 ... 장원삼 - 우쓰미 선발대결



〈장원삼〉



제2회 월드베이스클래식에서 4번째로 성사된 한국과 일본의 라이벌전은 이전 양상과 달리 타격전 전망이다. 양팀이 4강 진출 티켓을 확보한 일(한국시간) 오전 10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2라운드 1-에 나설 선발투수로 한국이 장원삼 일본은 우쓰미 데쓰야(요미우리) 내세운다고 발표했다.

장원삼과 우쓰미는 둘 모두 파워피칭보다는 제구력이 돋보이는 좌완 기교파 투수들이다. 지난 시즌 성적은 장원삼이 12승8패, 평균자책점 2.85였고 우쓰미도 12승8패, 평균자책점 2.73이었다.

리그가 다르긴 하지만 투구폼에 이어 성적마저 유별나게 비슷해 맞대결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래식(WBC)에 일본의 라이으로 펼쳐질

가운데 20 디에 이고 2위 결정전(히어로즈), 자이언츠)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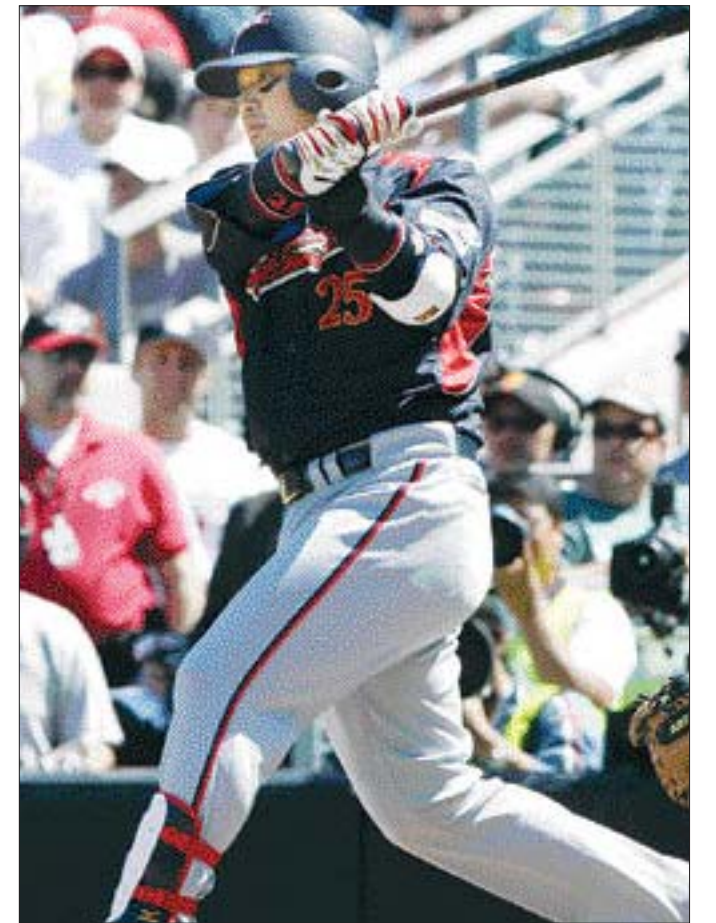
그러나 이번 대회에서 둘의 활약은 미미했다. 장원삼은 지난 7일 도쿄돔에서 열린 일본과 1차전에서 2-8로 크게 뒤진 3회초 세번째 투수로 마운드에 올랐지만 2와 3분의1 이닝 동안 4안타를 맞고 볼넷 3개를 내주며 3실점(2자책)한 뒤 강판됐다.

우쓰미는 이번 경기가 첫 등판이다. 쟁쟁한 투수들 틈에서 등판 기회를 잡지 못했다. 지난 12일 애리조나캠프에서 열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평가전에서는 2이닝동안 홈런 1방을 포함해 2안타를 허용하며 2실점했다. 양팀 벤치가 약속이라도 한 듯 닦은 풀인 장원삼과 우쓰미를 선발투수로 각각 내세운 것은 일단 승패에는 연연하지 않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1-2위 결정전보다는 준결승과 결승전을 대비해 주력투수들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인 셈이다.

한국은 '원투 펀치'인 류현진과 봉준근이 투구 제한규정에 걸려 나설 수 없고 일본 역시 '빅3' 마쓰자카 다이쓰케와 다쓰비시 유, 이와쿠마 히사시가 등판할 수 없다.

양팀 벤치는 선발투수가 일찍 무너지더라도 핵심 볼펜투수들을 기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20일 펼쳐지는 한국과 일본의 4번째 대결은 1위팀에게 주어지는 보너스 40만달러를 놓고 투수전보다 양팀 타자들이 화끈한 '방망이 전쟁'으로 뜨겁게 달아올 전망이다. /연희뉴스



〈우쓰미〉

## 4강, 미국이나 베네수엘라냐

### 한국, 투수력 비축 ... 상대 고르기 고민

4번째 맞붙는 일본 야구. 과연 전력투구를 해야 하나, 쉬어가며 후일을 도모해야 할까.

제2회 월드베이스클래식(WBC)에서 한국 야구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김인식 감독의 머리가 여간 복잡하지 않다.

예상했던 대로 일본은 19일(한국시간) 미국 샌디에이고 팻코파크에서 열린 WBC 2라운드 패자부활전에서 쿠바를 5-0으로 물리치고 한 장 남은 4강 티켓을 획득, 20일 오전 10시 한국과 1-2위 결정전을 벌인다. 한국과 일본은 도쿄돔에서 열렸던 1라운드 1-2위 결정전에서는 양팀 모두 총력전을 펼쳤지만 그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당시는 한국이 1차전에서 2-14로 콜드게임의 수모를 당했기에 자존심과 자신감 회복이 급선무였고 2라운드 1주일 뒤에 열리는 일정 때문에 투수들도 마음껏 기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준결승은 2라운드 종료 뒤 하루 쉬고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작된다. 이번 일본전에 투수를 소모했다가는 준결승에서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현재 대표팀 코칭스태프 내부에는 차라리 2위로 4강에 진출하는게 오히려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2위가 되면 22일 준결승, 24일 결승전을 치르며 꽤 짐중다리 휴식으로 체력을 비축할 수 있지만 1위가 되면 이를 휴식 뒤 23일 준결승, 24일 결승전에 잇따라 출전해야 한다.

더구나 1조 2위는 준결승에서 2조 1위인 베네수엘라와 맞붙고 1조 1위가 2조 2위인 미국과 대결한다.

베네수엘라가 이번 대회에서 미국을 두번씩이나 이긴 강팀이긴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 아무래도 홈팀인 미국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일본과 1-2위 결정전에서 아예 저주기를 입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한국은 '원투 펀치'인 류현진과 봉준근이 투구 제한에 걸려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고 일본 역시 '빅3' 마쓰자카 다이쓰케와 다쓰비시 유, 이와쿠마 히사시가 등판하지 못한다.

한국과 일본 모두 어차피 총력전을 펼칠 자원이 없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김인식 감독이나 하라 다쓰노리 감독이나 '저도 그만'이라는 자세로 경기에 나설 수는 없는 노릇이다.

과연 4번째 성사되는 한-일전에서 양팀 벤치가 어떤 경기를 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연희뉴스

## 시범 경기라지만... KIA 3연패 '뉴'

사직에 이어 대구 원정에 나선 KIA가 뒷심 부족으로 시범경기 3연패에 빠졌다.

KIA 타이거즈는 19일 대구구장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시범경기에서 불펜 난조로 8회에만 6실점 하며 2-7로 역전패 당했다. 초반 견제사로 공격의 흐름이 끊긴 게 아쉬웠다. KIA는 1회초 2사 2루에서 이재주의 2루

타로 먼저 1점을 뽑았으나, 이재주가 2루에서 견제사를 당하며 공격이 마무리 됐다.

3회말 삼성 양준혁의 적시타로 1-1 동점을 허용한 KIA는 5회 공격에서 선두타자 박진영의 3루타에 이은 김형철의 유격수 땅볼로 승부를 2-1로 되돌렸으나 뒷심 부족이 문제였다. 선발로 나온 광정철이 5이닝 5피안타 1실

점으로 호투하며 부진 탈출을 일렷지만, 타선은 확실한 승기를 잡는 추가 득점에 실패했다. 설상가상 마무리로 등판한 '좌완' 문현정마저 6실점 하며 무너졌다.

6회부터 마운드를 책임진 김영수가 2이닝을 1피안타 1탈삼진으로 막았지만, 8회 마운드를 넘겨받은 문현정이 선두타자 김상수에 볼넷을 내주며 불안한 출발을 했다.

### 견제사로 공격리듬 끊고

### 불펜 난조에 대량 실점

이어 터진 김창희의 2루타로 2-2 동점, 박한이의 중전 안타 때 중견수 이호신의 송구를 포수 차일목이 놓치면서 경기는 다시 2-3으로 뒤집혔다.

페이스가 흔들린 문현정은 최형우에게 투런포까지 허용하는 등 1이닝동안 6피안타로 6실점하며 패전투수가 됐고, 팀은 3연패에 빠졌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광주 동성고, 황금기 우승향해 첫발

광주 동성고가 공주고를 제압하고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우승을 향한 첫 발을 내디뎠다.

동성고는 19일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제 63회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공주고와의 개막전에서 투·타의 우위를 앞세워 7-0 완승을 거두었다.

최고 구속 142km의 직구를 선보인 유경국 은 6이닝을 피안타 없이 볼넷 2개만으로 완

벽하게 틀어막으며 승리의 주역이 됐다. 타선은 장단 16안타로 공주고 마운드를 공략하며 승리를 합작했다.

3회초 동성고의 공세가 시작됐다. 선두타자로 나온 문진제가 3루쪽 기습 번트로 출루한 뒤, 강시학의 몸에 맞는 볼과 유경국의 희생 번트로 1사 2-3루가 됐다.

이어 타석에 들어선 4번 심의정은 2타점 적시타를 때리며 2-0으로 기선을 제압했

다.

4회 1사 만루에서 강시학의 내야 땅볼로 1점을 추가한 동성고는 5회 1사 3루에 터진 채수웅의 좌전안타로 추가점을 내면서 4점 차까지 달아났다. 5-0으로 앞선 9회에 5안타를 몰아치며 2점을 추가, 승리를 자축했다.

유경국에 이어 마운드에 오른 박선용, 배진선, 이영기도 공주고에 1안타만을 허용하

### 유경국 막고 심의정 때리고

### 총칭 강호 공주고에 7-0 승

는 등 철벽 계투로 팀의 승리를 지켰고, 4번타자 심의정은 2개의 2루타를 포함해 5타수 3안타 3타점을 기록하며 동성고 공격을 주도했다.

1회전을 통과한 동성고는 오는 24일 오후 12시30분 대구고와 2회전 대결을 펼친다. 대구고는 19일 부산공고와의 경기에서 6-0으로 승리해 2회전에 진출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동성고의 김민재가 19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공주고와의 황금사자기 개막전에서 4회초 안타를 치고 나간 뒤 김창권의 내야 안타 때 3루 진루를 시도하다 이ട되고 있다.